

이재명-이낙연 전면전 속 주자들 '모두까지' 난타전

이재명 "이낙연, 상황따라 말 바꾸는게 문제...이중플레이"

이낙연 "검찰 옵티머스 사건 조사 미심쩍은 것 있다"

정세균 "이재명 국정경험 부족...이낙연 총리 때 부동산 못잡아"

김두관 "이재명 영남후보 규정 어려워...이낙연 꽃길만 걸어온 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낙연 전 대표의 전면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다른 4명의 주자들 입도 거칠어지면서 전반적인 난타전 흐름으로 치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결정 논란에 대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게 문제"라며 "똑같은 상황에서 이중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

에 대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 음해하고 흑색선전하면 안 된다", "진인적-즉근-가족 등 부정부패는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몰아붙였다.

전남지사 시절의 공약 이행률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지사 열린캠프 이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표가 '2015년 공약 21개 중 20개를 이행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허위

공약 이행률"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백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역주의를 깨자는 선의의 발언을 가지고 내가 조장했다는 식"이라며 "황당할 정도로 답답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공격을 시작하다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한다. 늑대나 치와와를 두고 싸우다가 우리가 언제 될 뻔하는 양상"이라며 "도서관에서 정속하라고 소리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내가 출세하는 게 목표였는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보고 (그것이) 내 삶을 통째로 바꿨다. 광주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열망으로 내 모든 것, 대선 경선도 포기할 생각까지 했는데 의심하고 공격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캠프

관계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흑색선전"이라며 "이 지사가 측근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발목잡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라디오에서 "검찰이 이제라도 옵티머스 사건을 정말 철저히 파헤쳐주기를 바란다"며 "그 사건조사에 대해 아직도 미심쩍은 것이 있다"고 측근 비리 논란에 선을 그었다. 또 "제가 무능한 총리였다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총리 및 당대표 시절 각종 성과도 거론하면서 "그걸 애써 눈감으면서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하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원팀 협약'을 하고도 TV토론에서 상호 비방이 계속된 것과 관련해선 "상대 후보가 오히려 이쪽이 흑색선전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해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 됐다"며 "경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에서 양강 주자들 동시에 겨냥했다. 이 지사에 대해 "국정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를 모른다"라고,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총리 시절 부동산도 제대로 못 하고, 집권 초기 지지율 턱을 본 것이지 내로라할 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각각 지적했다.

'모두까지'라는 별칭이 생긴 김두관 후보도 라디오에서 "이 지사는 고향은 안동이지만 영남 후보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꽃길만 걸어온 분으로, 어떻게 보면 쉬운 정치를 해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27.5%, 이재명 25.5%, 이낙연 16.0%

리얼미터 조사...최재형 5.5%

리얼미터의 차기 대권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2058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직전인 7월 12-13일 조사 때보다 0.3%포인트 떨어진 27.5%, 이 지사는 0.9%포인트 내린 25.5%로 각각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 2.2%포인트) 내인 2.0%포인트로, 직전(1.4%포인트)보다는 벌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0.4%포인트 오른 16.0%로 3위에 자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포인트 오른 5.5%를 기록, '마의 장벽'이라 불리는 5% 선을 뚫으며 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섰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4.4%), 추미애(4.1%) 전 법무부 장관이 5, 6위를 차지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2.1%),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0%), 유승민 전

의원(1.9%)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에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전 총장은 하락세가 다소 둔화했다. 리얼미터 측은 "주 120시간 근무, 대구 방문에서의 민란 발언 등 잇단 설화가 있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차맥 화동'으로 향후 행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3.2%포인트)과 광주·전라(+2.6%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이 지사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빠져졌지만, 이 전 대표에게 오롯이 이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양자 가상대결에선 윤 전 총장이 이 지사, 이 전 대표 누구와 불타더라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양자 대결에선 윤 전 총장이 40.7%, 이 지사가 38.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가 맞붙을 경우 각각 42.3%, 37.2%로,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을”

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빠른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또 "장기적 대책도 중요하다. 손실보상제도가 10월에 시행되는 대로 원활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두고도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신용 회복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있다"며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및 추석물품 공급량 조기 확대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힌 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을 자신할 수 없다.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10명중 7명 "이재용 8·15 가석방 찬성"

56% "전직 대통령 특사는 반대"

한국리서치 등 4개기관 합동조사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반면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6-2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가 70%, '반대한다'는 22%로 각각 집계됐다.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가 56%, 찬성이 38%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날 공개된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계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